

제 45 호 1987년 3월 20일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머물러만 있을 수는 없다.

배 승 학



1965년 10월 1일 한일병원 회의실에서 우리 협회가 탄생한 이래로 많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회원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물리치료실도 800여군데로 늘어났으며, 전국에 18개 지부를 갖는 규모로 성장을 하였다.

금년도 신입회원을 예상하면 4,000이 넘는 회원을 갖게되고, 이를 대비해서 지난번 총회에서 정관 제2조를 시·도에 지부가 아닌 시회, 도회를 두기로 개정하고 시·도회 산하에 지부 및 분회를 두기로 하였다. 오래된 선배 회원들께서는 중앙회에 직접 가입되어 있던 때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어색한 점이 제시됐지만, 이제 중앙회는 회원 각자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고 시·도회와의 관계만을 유지하며, 시·도회는 지부나 분회를 권장하게 되고, 지부나 분회는 소속 병·의원 또는 물리치료소나 회원(미취업의 경

우)을 단합하고 규합하며 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활동하게 된다.

지부나 분회가 단합되고 활성화될 때, 물리치료사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이 도모될 뿐만 아니라 권익과 신분의 보장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부나 분회에서 지부나 분회의 회원들의 권익에 봉사한 사람이 시·도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 중에서 보다 탁월하고 협회원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중앙회 임원이 되어야만 우리 협회는 발전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협회(시·도회, 지부·분회)와 회원이 혼연일체가 될 때, 특히 소속 물리치료실과 소속 지부나 분회안에서의 물리치료사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전체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믿는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부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하듯, 우리가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 위하여 나부터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여야 하고 하나 하나 실천하여야 하리라 본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먼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학제의 개편과 전문화된 물리치료의학의 개발이라고 본다. 전자는 이미 교수협의회에서 우선 3년제로의 개편부터 시도하자는 건의를 전문대학장회의에 하였고, 협회에서는 교육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문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3년제에서 점차로 4년제로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꾸준한 추진이 있으리라고 보이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외부의 협조나 작용이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추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리라고 본다. 즉 물리치료의 전문화란, 예를 들면 정형외과 물리치료학, 신경외과 물리치료학, 재활 물리치료학, 산·소아과 물리치료학, 일반 물리치료학 등으로 물리치료도 그 전문을 다양화하여 보다 깊이가 있고 전문화된 물리치료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의 제고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이 다같이 인식하고 같이 노력하면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해주리라 생각하고 이루어 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요원하리라고 생각된다. 뜻이 있는 몇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 지리라고 믿는다. 인류문명의 발전이나 인간의 행복추구에 공헌한 이들은 다수나 대중에 아니고 소수의 용기와 헌신의 노력을 제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을 상기해보고 같은 뜻을 지니고 같이 힘을 합치기를 원하는 회원이 많이들 모여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필자도 언제든지 같이 하기를 희망하며 뜻있는 동지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한 과제로 물리치료소 개설이라는 작업이 범제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협조와 호응이 있기를 바라며, 물리치료사 전체가 갈망하고 희망하는 일에 현재 자기가 처해있는 작은 입장 때문에 전체를 배반하거나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로인해 잡음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없이 물리치료사라면 총 단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정치적, 조직적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여 중앙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 중앙회 총무이사, 삼우양행 대표)

“어린이들을 위한 주문된 보행용 고안품”

- The VALAD Suslem -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핸디캡이 있는 어린이들을 crutch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텍사스 스코티스 라이트 병원에서는 (소아과의 정형외과 병원인) 많은 어린이들이 통상적으로 알미늄 전박 crutch나 axillary crutch를 갖고 걷는 법을 배운다. 어린이에 대해 작은 size와 upper extremities 기능의 limitation이 이들 crutch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더우기 wooden crutch (나무클러치)가 플랫폼에서 사용되어 질때 그 crutch가 어린이가 들어 올리기에 너무 무겁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어린이를 위해 주문 생산된 crutch를 만든다. PVC pipe가 가볍고 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rutch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진다. 그것이 U/E deformity에게 적합할 수 있고 어린이의 성장에 맞추어 만들어질 수 있다. 원래의 주문생산된 crutch가 개별화된 crutch의 체제의 결과를 낳았다. 매우 적합한 가벼운 보행용 기구체제(very adaptable lightweight ambulatory device system: VALAD)는 플라스틱으로 된 겨드랑이에 적합한 가벼운 crutch(plastic axillary adaptable lightweight : PALL)와 전박 보행용기구(EAD crutch)로 구성되어 있다. 그 VALAD 체제는 매우 어린 아이들을 위해 통상적으로 적합한 나무로 된 axillary crutch나 알미늄으로 된 forearm crutch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양자택일로 시험되어 왔다. 우리 병원에서 지난 6년 이상 관례적인 crutch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25명의 어린이들이 이 체제로서 보행하는 능력을 개발시켜 왔다. 14개월에서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arthrogrypsis (n=10), cerebral palsy(n=7) sacral agenesis(n=3), 또는 다른 조건(n=5)로 진단받은 어린이들이 crutch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U/E deformity가 있는 어린이나 arthrogrypsis로부터 기능부전이 있는 어린이들은 처음 걷기를 배울 때 손에 끼는 것이나 가능한한 가벼운 crutch를 요구한다. PAAL crutch는 그 해결점이다. Guillain-Barre' syndrome이나 Spinal atrophy나 Quadrilateral Amputation과 같은 다른 조건을 갖는



Fig. 1. The PAAL crutch used by a child with arthrogry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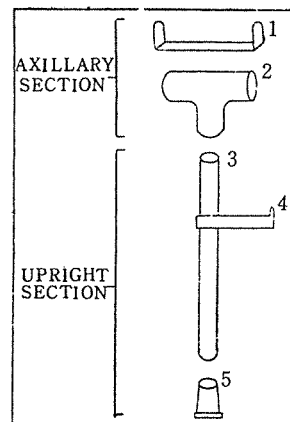


Fig. 2. Components of the PAAL crutch. Axillary section: 1) anterior-posterior extension and 2) "T" connector. Upright section: 3) adjustable section. 4) handpiece and 5) crutch tip.